

중국 지린성 조선족의 언어 정체성 변화와 언어 사용 양상*

박경래
(세명대학교 교수)

Abstract

Park, Kyeongrae. 2018. "Change in Language Identity and Language Use of Ethnic Koreans Living in Jilin, China". *The Sociolinguistic Journal of Korea* 26(4). 57-90. Reform and opening-up in China brought rapid changes in the society of ethnic Koreans in China. And those changes caused following changes in language identity and language attitude of those ethnic Koreans that eventually led to change in their language use.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s relation between changes in language identity and language attitude and their language use.

The rates that Ethnic Koreans living in Jilin, China consider their mother language to be Korean (Joseon language, South Korean language and North Korean language) are different by their generations. Middle aged and older people tend more to consider Korean as their mother language compared to younger generation. Those two generations, however, showed opposed opinions about the future language they will use. More of older generation predicted that Korean will be rarely used among ethnic Koreans living in China in the future compared to younger generation.

The difference of language identity and the attitude to the language across generations was reflected in their actual language use. Older generations use Korean in general.

* 이 논문은 2014-2015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5A2A01014740).

이 글은 2017년 봄 사회언어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 지린성의 이중 언어 사용에 대한 부분만을 따로 떼어 심화시킨 후속 논문인 셈이다. 아울러 이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귀중한 의견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 귀중한 의견을 미처 반영하지 못했거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모두 필자의 몫이다.

They may borrow Chinese words when they can't come up with appropriate Korean words or sometimes show code mixing by using Chinese words and sentences while speaking in Korean. In generations younger than middle age, code mixing and code switching are more frequently observed when their conversation topics are Chinese politics and Chinese cultures. The youngest generation mainly uses Chinese and showed code switching most frequently among all generations. The language use observed differently among the generations is reflection of changes in language identity and language attitude.

Keywords: linguistic identity, language attitude, language use, mother tongue, borrowing, code-mixing, code-switching

1. 서론

중국 조선족들은 주로 동북 3성이라고 하는 지린성, 랴오닝성 그리고 헤이룽장성에 약 183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¹⁾ 특히 지린성의 동부인 예벤조선족자치주에 조선족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²⁾ 그런데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에 따라 연해주를 중심으로 한 대외 개방의 본격화로³⁾ 중국 사회의 변화와 한·중 수교(1992) 이후 조선족의 한국 왕래가 자유로워지자 많은 수의 조선족들이 일자리를 찾아 한국으로 건너오면서 중국

-
- 1) 이 글에서 '조선족(朝鮮族)'은 중국에 거주하는 한민족(韓民族), 즉 중국 국적의 한인(韓人)을 뜻하며 '재중 동포', '재중 한인 동포'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쓴다. 이 글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중국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이 사용하는 '조선족'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 2) 중국 조선족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을 조선족 집거지구(集居地區)라고 하고, 상대적으로 조선족들이 흩어져 거주하는 지역을 산재지구(散在地區)라고 한다. 지린성의 옌지(延吉), 룡정(龍井), 화룡(和龍), 투먼(圖們), 훈춘(琿春), 안투(安圖), 왕칭(汪清) 등 조선족들의 거주 밀도가 높은 예벤자치주는 집거지구이고, 랴오닝성이나 헤이룽장성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조선족들의 거주 밀도가 낮은 지역은 산재지구다.
 - 3)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국의 개혁개방은 1987년 이후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대외 개방정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시기부터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1978년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 중국 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제기되어 실행된 정책으로 흔히 1984년 2월 덩샤오핑이 대외 개방과 경제 특구 건설을 강조하면서 다롄, 친황다오, 톈진, 옌타이, 칭다오, 쉐닝강, 난퉁, 상하이, 닝보, 온저우, 푸저우, 광저우, 잔장, 베이하이 등 14개 연해도시를 개방한 것을 말한다.

의 조선족 사회는 급속한 인구 이동으로 인해 해체되거나 거주지가 재편되는 변화를 겪게 되었다.⁴⁾ 인구 이동으로 인한 조선족 사회의 해체와 재편은 이들의 언어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⁵⁾

중국의 개혁 개방과 한중 수교 이후 중국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조선족 사회의 이합과 집산으로 조선족들의 언어 사용에도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고 그 결과 조선말은 급격하게 쇠퇴하는 반면 중국어의 사용은 급속히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언어 사회에서의 언어 사용은 언어 정체성이나 언어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중 언어 사회인 조선족 사회에서의 언어 사용 양상의 변화는 조선족들의 언어 정체성의 변화에서 비롯되고, 언어 정체성의 변화는 조선어에 대한 언어 태도의 변화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런 조선족 사회의 변화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지린성 조선족들의 언어 정체성 변화가 반영된 언어 사용 양상을 실제 언어 사용 맥락에서 관찰한 조선어와 중국어의 코드 뒤섞기와 코드 바꾸기를 통해 살펴보려 한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은 중국 정부가 실시한 인구조사 통계가 잘 말해준다. 한·중 수교 이전에 실시한 제4차(1990년) 인구 조사 결과와 한·중 수교 이후에 실시한 제5차(2000년)와 제6차(2010년) 전국 인구 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조선족의 인구 변화 추이를 알 수 있다. 지린성의 조선족 인구는 <표 1>에서 보듯이 제6차 전국 인구 조사를 실시한 2010년 10월 기준으로 약 104만여 명이다. 1990년의 조선족 인구수 110만 4천여 명에 비하면 약 6만 4천 명 정도 준 것이다. 이는 이 지역에 살던 조선족들이 중국 내의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시기에 연변자치주 내에서도 조선족들이 농촌 지

-
- 4) 중국의 조선족들은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으로 1990년을 전후하여 거주 지역을 떠나 다롄, 선전, 상하이, 톈진, 칭다오 등 연해도시로 이주하여 신흥 집거지구를 형성하기도 하였고, 1992년 한중 수교 이후에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한국으로 이주하는 경우도 많았다. 법무부 출입국 통계 자료에 의하면 <표 2>에서 보듯이 2013년 이후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계속 늘어 2018년 5월말 현재 체류 외국인은 2,291,653명이고 국적별로는 중국이 1,045,641명(한국계 694,319명 포함)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미국, 베트남, 타이,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순이었다. 그리고 전체 체류 외국인 가운데 35.1%가 조선족이다.
 - 5) 개혁개방 정책의 시행 이전에는 거주 이전이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조선족 사회도 안정적 이었고 자연히 조선족 사회의 언어와 문화적 전통도 잘 보존할 수 있었다.

역에서 엔지와 같은 도시 지역으로 이주하는 향도이농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광규 1996: 36).

〈표 1〉 중국 지린성 조선족의 인구 변화⁶⁾

지역	1990		2000		2010		연평균 인구성장률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1982~1990	1990~2000	2000~2010
중국 전체	1,923,361	100	1,923,842	100	1,830,929	100	1.07	0.00	-0.50
동북 3성	1,868,377	97.14	1,775,198	92.27	1,607,510	87.80	0.93	-0.50	-0.99
지린성	1,183,567	61.54	1,145,688	59.55	1,040,167	56.81	0.87	-0.31	-0.97

〈표 1〉의 통계 숫자는 모두 주소지(호구)를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실제 거주 여부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는 다음의 〈표 2〉에서 보듯이 2018년 5월 말 현재 체류 외국인 2,291,653명 가운데 약 30.3%인 694,319명이 조선족으로 전체 중국 조선족의 약 37.9% 이상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조선족들의 한국 이주로 전통적인 조선족 공동체가 급속하게 해체되고 재편되는 것과 맞물려 중국 조선족의 언어 사용 환경도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2〉 연도별 중국인과 한국계 중국인 체류 현황

구분	2013년 12월 31일	2014년 12월 31일	2015년 12월 31일	2016년 12월 31일	2017년 12월 31일
총계	1,576,034	1,797,618	1,899,519	2,049,441	2,180,498
중국	778,113	898,654	955,871	1,016,607	1,018,074
한국계	497,989	590,856	626,655	627,004	679,729

〈출처: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2018)〉

6) 〈표 1〉은 동북 3성에 거주하던 조선족 비율이 1990년에는 97.14%였는데 2000년에는 92.27%, 2010년에는 87.80%로 급격히 줄어든 반면 타 지역으로의 이동은 1990년에 2.86%이던 것이 2000년과 2010년에는 각각 7.73%, 12.20%로 급격히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동북3성에 거주하던 조선족들의 상당수가 개혁개방 이후 집거지구를 떠나 중국의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음을 의미한다. 〈표 1〉은 권태환·박광성(2004)와 박광성(2012)를 인용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박경래(2017: 3)에서 이 글과 관련된 일부 내용만 가져온 것이다.

조선족의 이합과 집산으로 상당수의 조선족 마을이 사라지거나 한족(漢族)이 주류를 이루는 마을로 바뀌었다. 자연히 조선족 소학교가 문을 닫거나 인근 학교와 통폐합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는 자발적으로 한족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증가하는 상황이 되었다(박경래 2002가, 2002나 참조). 이는 조선족 사회에서 유지되던 풍습과 전통이 단절되는 것과 함께 조선족 학교에서 가르치던 전통적인 방식의 조선말 교육과 전수가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⁷⁾ 이에 따라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조선말의 급격한 쇠퇴를 보이고 있다.

조선말의 쇠퇴는 조선족들의 언어 정체성의 변화에서 비롯되고, 언어 정체성의 변화는 조선어에 대한 언어 태도의 변화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언어 정체성의 변화가 실제 언어사용 맥락에서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느냐 하는 점이다. 다음 장에서 지린성 옌벤 지역의 언어 사용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조선족의 언어 사용 양상

중국의 소수민족 가운데 하나인 조선족 사회는 상위 집단인 중국 사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한 이래 중국의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대외 개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조선족 사회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 개혁개방 정책의 성공에 따른 급속한 경제 발전은 언어 정체성의 변화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박경래 2017: 10~21). 이에 따라 이 장에서는 박경래(2017)에서 논의한 동북 삼성의 조선족들이 보이는 모국어에 대한 언어 정체성 변화와 조선말의 장래에 대한 언어 태도의 변화를 지린성 조선족들로 한정하여 언어 정체성과 언어 태도가 구체적으로 언어 자료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7) 이 글에서는 ‘조선말’을 중국 조선족이 사용하는 우리말의 의미로 쓴다. 특별한 설명이 없는 경우 중국 조선족들이 쓰는 우리말을 지칭하는 용어로 ‘조선말’과 ‘조선어’ 그리고 ‘우리말’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2.1. 조선족의 언어 정체성과 조선말의 장래

이 절에서는 박경래(2017)에서 논의한 중국 조선족들 전체의 모국어에 대한 언어 정체성 변화와 조선말의 장래에 대한 언어 태도 가운데 지린성의 경우만을 따로 살펴봄으로써 구체적인 언어사용 양상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중국 조선족들의 모국어에 대한 언어 정체성 변화는 다음의 <표 3>에서 보듯이 세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표 3> 지린성 조선족들의 세대별 모국어 인식

구 분	지린성 조선족들의 세대별 모국어 인식			전체
	모국어 인식 빈도(비율 %)			
	우리말(조선말+한국말+북한말)	중국어	기타	
청년층	200(90.4)	20(9.1)	1(0.5)	221(100.0)
중년층	326(92.3)	24(6.8)	3(0.9)	353(100.0)
노년층	141(93.4)	10(6.6)	0(0.0)	151(100.0)
전 체	667(92.0)	54(7.4)	4(0.6)	725(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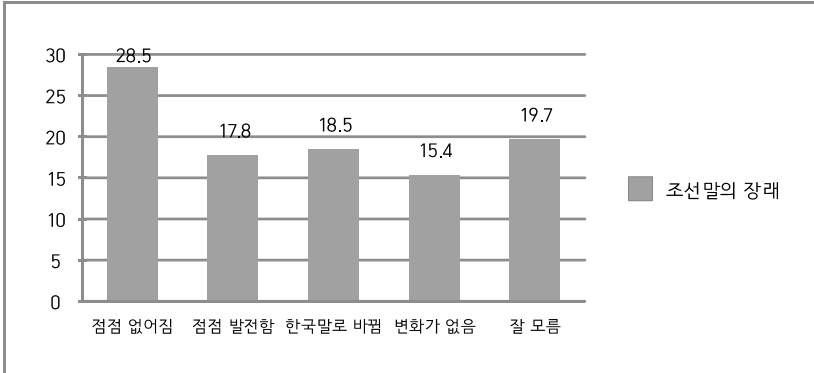
위의 <표 3>은 지린성 조선족들의 모국어에 대한 인식을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나는 우리말을 모국어로 인식하는 비율이 노년층(93.4%)와 중년층(92.3%)에 비해 청년층(90.4%)으로 갈수록 줄어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와 반비례하여 노년층(6.6%)이나 중년층(6.8%)에 비해 청년층(9.1%)으로 갈수록 중국어를 모국어로 인식하는 비율이 늘어난다는 사실이다.⁸⁾

8) 다음 <표 4>는 지린성에 비해 랴오닝성이나 헤이룽장성 조선족들이 조선말을 모국어로 인식하는 비율이 훨씬 낮다는 것을 말해준다.

<표 4> 중국 조선족들의 모어 인식(박경래 2017: 10을 재구성)

구분	조선족들의 모어 인식(비율)			전체
	조선말+한국말+북한말	중국어	기타	
지린성	667(92.0)	54(7.4)	4(0.6)	725(100.0)
랴오닝성	293(70.9)	112(27.1)	8(1.9)	413(100.0)
헤이룽장성	587(75.2)	185(23.7)	9(1.2)	781(100.0)
전체	1,378(71.8)	351(18.3)	21(1.1)	1,919(100.0)

지린성 조선족들의 모국어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조선말의 장래에 대한 전망도 다음의 [그림 1]에서 보듯이 밝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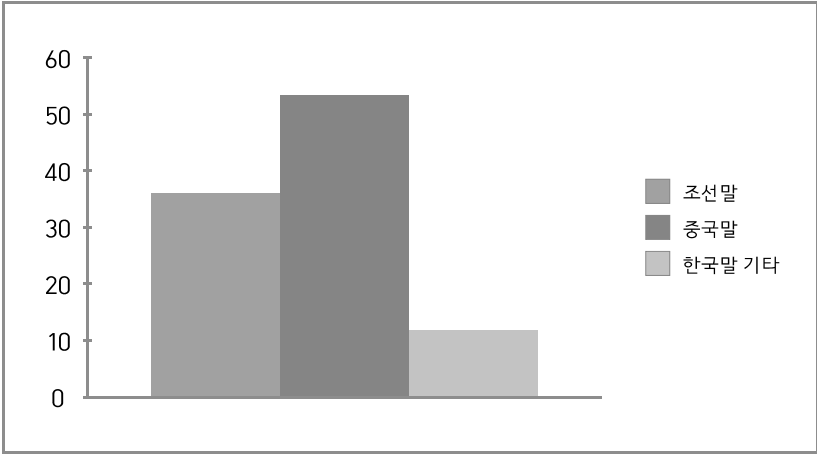
[그림 1] 조선말의 장래에 대한 지린성 조선족들의 인식¹⁰⁾

위의 [그림 1]에서 보듯이 지린성 조선족의 28.5%가 조선말은 점점 없어질 것으로 여기는 반면, 발전할 것으로 보는 비율은 17.8%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지린성 조선족들 가운데 모국어가 중국어라고 여기는 비율이 젊은층으로 갈수록 높아지는데 반해 조선말의 장래에 대하여는 부정적으로 보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말의 장래에 대한 태도는 앞으로 지린성 조선족 사회에서 사용하게 될 언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린성 조선족들이 앞으로 지린성 조선족 사회에서 사용하게 될 1순위 언어로 여기는 말은 다음 [그림 2]와 같다.¹⁰⁾

9) [그림 1]은 박경래(2017: 14)의 조선말의 장래 전망 비율 [그림 1]의 자료 가운데 지린성만을 따로 떼어 제시한 것이다.

10) 앞으로 지린성 조선족이 사용할 언어는 박경래(2017: 18)의 [그림 4]를 위한 자료에서 지린성 부분만을 떼어 따로 제시한 것이다.



[그림 2] 앞으로 지린성 조선족들이 사용하게 될 언어

위의 [그림 2]는 앞으로 지린성 조선족들이 사용하게 될 1순위 언어를 복수로 응답하게 한 것이다. 지금과 같은 추세로 간다면 먼 미래에 지린성 동포 사회에서 앞으로 쓰이게 될 말을 복수로 응답하게 한 결과 조선말을 1순위로 뽑은 비율은 36.0%이고 중국어를 1순위로 뽑은 비율은 53.4%, 한국말 및 기타를 1순위로 뽑은 비율이 11.8%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역시 지린성 조선족들이 조선말의 장래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 절에서는 세대 간에 보이는 이러한 언어 정체성의 변화나 언어 태도의 변화가 지린성 조선족들의 실제 언어 사용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¹¹⁾

11) 이 글에서 인용하는 언어 자료는 지린성 엔지와 투먼 그리고 둔화에 조사되었다. 노년층 자료는 필자가 투먼에 거주하는 80대 제보자 세분과 둔화에 거주하는 두 분의 구술 자료를 녹음한 자료에서 뽑은 것이고, 중장년층 자료는 엔지와 둔화에 거주하는 40대와 50대 제보자 여섯 명의 대화와 토론 자료에서 뽑은 것이다. 엔지의 중장년층 자료는 연변대학교 김순희 교수와 양홍 교수의 도움으로 녹음한 것이고, 청소년층 자료는 연변 2중 학생들의 대화를 필자와 김순희 교수, 그리고 연변 2중 김현주 학생이 녹음한 것이다. 청소년층 제보자는 모두 다섯 명이었다. 자료 수집에 도움을 준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

2.2. 이중 언어 사용

이중 언어 사회에서 어떤 언어 공동체가 이전부터 써 오던 언어를 계속해서 쓰는 것을 언어 보존이라고 하고, 그 언어 공동체가 이전부터 써 오던 언어를 버리고 다른 언어를 쓰게 되는 현상을 언어 전환(언어 교체)이라고 한다(이익섭 2000: 301).¹²⁾ 언어 보존이든 언어 교체든 문제는 어느 것을 선택하고 어느 것을 버리느냐와 관련된다. 그런데 실제 언어 사용 현장에서는 언어 보존과 언어 교체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예컨대, 한 언어의 어휘를 정교화할 필요가 있을 때 새로운 개념을 가진 외국어를 토착어의 음운체계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하는 언어 차용이 있고, 대화 장면에서 하나의 문장이나 구절 안에서 두 언어의 전환이 빠르게 일어나는 코드 뒤섞기(code-mixing)가 있다.¹³⁾ 그리고 이중 언어 사용자가 대화하는 사회적 상황이나 맥락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코드를 사용하게 되는 코드 선택(code-choice), 이중 언어 사회에서 어떤 화자가 사용하고 있던 언어를 완전히 다른 언어로 바꾸어 사용하는 언어 교체(language shift)도 있다.¹⁴⁾ 특히 상위 집단의 언어와 하위 집단의 언어가 공존하는 경우에는 하위어가 상위어로 전환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알려져 있다.

-
- 12) 이 글에서는 어떤 언어 공동체나 개인이 기존에 사용하던 언어를 완전히 다른 언어로 바꾸어 사용하는 경우는 ‘언어 전환’이라는 용어 대신 ‘언어 교체’라는 용어로 사용할 것이다.
 - 13) ‘코드(code)’라는 용어는 번스타인(Bernstein 1971)이 도입한 개념으로 사회 계층에 따라 두 가지 종류의 언어 사용 방식(말하기 방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정교한 코드(elaborated code)와 제한적 코드(restricted code)로 명명하였다. 정교한 코드는 문장 구조가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완전한 형태를 보이고 다양한 어휘가 사용되어 교육과 같은 공적인 상황에서 사용하는데 비해 제한된 코드는 상대적으로 덜 복잡하고 짧은 문장을 사용하며 강세나 억양과 같은 비언어적인 요소들을 사용하게 되는 친밀하고 사적인 상황에서 주로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다(강현석 외 2014: 362~363). 이 글에서는 코드를 ‘이중 언어 사회에서 사용하는 언어’ 정도의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 14) 이익섭(2000: 301)에서는 어떤 언어 공동체가 전통적으로 써오던 언어를 버리고 다른 언어를 쓰게 되는 경우를 언어 전환의 대표적인 예로 설명하였으나 코드 바꾸기와 코드 전환을 code-switching의 대응어로 썼고 강현석 외(2014: 365)에서는 코드 전환이라는 용어로만 사용하였다. 이 글에서는 기존에 써오던 언어를 버리고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언어 교체라는 용어를 쓰고 언어 사용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언어 선택을 달리하면서 사용하는 경우는 코드 뒤섞기와 코드 바꾸기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러한 전환이 일반화되면 언어 교체가 되면서 언어 사멸이 일어나게 된다.

중국 조선족들의 경우 개혁개방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는 조선족으로서의 언어 정체성을 유지한 채 모국어를 잘 보존하고 있었다. 이는 중국의 언어 정책이 소수민족들의 언어와 문화를 인정하는 다언어 정책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개혁개방과 함께 중국의 소수민족들은 소수민족으로서의 언어 정체성을 잃고 중국어에 통합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런 변화는 중국의 조선족들에게도 나타난다(강현석 외 2014: 318~319).¹⁵⁾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중국 조선족들의 경우 오랜 동안 중국어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중국어 어휘를 차용하여 쓰기도 하고, 말하는 상황이나 상대에 따라 조선말을 쓰기도 하고 중국어를 쓰기도 하는 언어 선택(language choice)을 해왔다. 언어 선택은 두 가지 종류로 나타난다. 하나는 코드 뒤섞기(code-mixing)이고 다른 하나는 코드 바꾸기(code-switching)다.¹⁶⁾ 조선족들의 코드 뒤섞기는 조선말을 주로 하고 중국어 단어나 구, 문장 등을 문장 중간 중간에 섞어 쓰는 현상을 말한다.¹⁷⁾ 이에 비해 ‘코드 바꾸기’는 대화 장면에서 조선말을 쓰다가 순간순간 중국어 문장으로 바꾸어 쓰거나 직장에서는 중국어를 쓰다가 집에 와서는 조선말을 쓰는 등의 현상을 말한다. 여기에서는 차용과 코드 뒤섞기, 코드 바꾸기의 실제에 대하여 언어 정체성이나 언어 태도와 관련지어 살펴보고자 한다.

2.2.1. 중국어 차용

앞에서 언급했듯이 ‘언어 차용’은 ‘한 언어의 어휘를 정교화할 필요가 있

15) ‘통합’이라는 용어보다 ‘교체(shift)’라는 용어가 더 적절해 보인다.

16) 이익섭(2000: 303)에서는 코드 바꾸기를 ‘코드 전환’이라고 부르고 코드 뒤섞기를 ‘코드 혼합’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17) 주의할 점은 코드 뒤섞기의 단위가 단어일 때는 차용(borrowing)과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차용은 단어가 이미 정착된 것으로 코드 뒤섞기에서 제외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박 선생은 무슨 공작(工作)하러 왔어요?”와 같이 말했다면 ‘공작’은 중국어 ‘工作(gōngzuò)’의 차용이고, “박 선생은 무슨 공주오(工作[gōngzuò])하러 왔어요?”와 같이 말했다면 코드 뒤섞기가 되는 것이다.

을 때 새로운 개념을 가진 외국어를 토착어의 음운체계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하는 것'(강현석 외 2014: 417)으로 정의되지만 실제 언어 사용 현장에서는 코드 뒤섞기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단어인 경우는 코드 뒤섞기와 차용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문장 내에서 중국어 단어를 한국 한자음으로 발음하는 경우는 명백한 차용으로 볼 수 있지만 중국어식으로 발음하는 경우는 차용으로 보아야 할지 코드 뒤섞기로 보아야 할지 애매하다. 발음은 중국어식이지만 성조가 다르거나 음가가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이런 예들 가운데 명확하지 않더라도 성조가 인지되거나 중국어의 음성 특징이 있으면 코드 뒤섞기로 처리하고 성조 없이 한국한자음으로 발음하는 경우는 차용으로 처리하고자 한다. 이렇게 처리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조선족들이 중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중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고 하더라도 표준 중국어 발음이 아닌 지린성 방언으로 구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¹⁸⁾ 이에 따라 어휘의 경우는 화자들의 인식을 고려하여 중국어라고 인식하면 표준 중국어 발음과 차이가 있거나 발음이 부정확하더라도 코드 뒤섞기로 처리하고, 중국어에서 온 한자어,¹⁹⁾ 또는 중국어 기원을 모르는 경우는 차용으로 처리하고자 한다.

다음의 예문 (1)은 중국어와 조선말의 접촉에서 조선말 속에 중국어를 차용하여 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언어의 차원에서 보면 조선말에 차용된 외래어라고 할 수 있다.

(1)

가. 내 신봉(薪俸)으루 양천원 받는데 선생님은 공자(公資)르 얼마 받소.

18) 이 글에서 말하는 '중국어식 발음'은 조선족들이 중국어 어휘나 문장을 표준 중국어로 발음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중국어 성모의 발음이 다른 경우나 성조가 다른 경우, 문장 구조나 유형이 다른 경우 등 중국어 변종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지린성 조선족들이 중국어라고 인식하는 일종의 연벤 중국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족들이 중국어 발음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두 언어의 음운체계가 다르고 변이음들, 특히 중국어 의 변이음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19) 송원양(2017: 2~3)에서는 이런 경우 자차형(字借型) 차용어라고 하였다.

나. 저녁 먹고 커팅(歌廳)에 노래 부르러 갔댜어.
 다. 예전에는 아버지라고 했는데 요새는 빠빠나 빠마(爸爸)라구두 하오.
 라. 한국 뎨스(電視: TV) 볼라문 꺀까일(鍋蓋)²⁰ 달아야 되오.
 마. 여름에두 뺩상(冰箱)이 있어서 일없어요.
 바. 지금은 소푸투라지(手扶拖拉機)루 농사 짓잖구.²¹
 사. 뎨디(點滴)르 한 대르 맞으문 인차 나오.
 아. 뺩골(冰棍兒) 다르고 빙치린(冰激凌) 다르오.
 자. 새로 나온 쏘지(手機)느 쓰기가 바쁘담 말이오.
 차. 저 마당에 싱궁기 다두배차(大豆白菜)하구 고습풀이지 머.
 카. 그 담에 저: 머여 집체루 하지 말구 개:인으루 노나 조라. 그 담에 저: 저 캐황,
 캐황(開荒[kāihuāng])이라능 게 뤼냐 하나까 저기 가서 산에 가서 네 맘:대루
 (땅을)일귀서 해: 먹어라.

위의 예문 (1가)에서 ‘신봉’은 봉급(俸給)에 대응하는 중국어 ‘薪俸([xīnfèng])’을 차용한 것이고, 공자(工資) 역시 급여(給與)에 대응하는 중국어 ‘工資([gōngzī])’를 차용한 조선말식 발음이다. 중국어에서 ‘薪俸([xīnfèng])’은 ‘봉급, 급여, 급료’의 의미인데 ‘工資([gōngzī])’는 ‘임금, 노임’의 의미여서 엄밀히는 구별되지만 조선족들은 구별하지 않고 둘 다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 정도의 의미로 사용한다. ‘월급’은 최근 젊은층에서 많이 사용하는 어휘다. 예문 (1나)의 ‘노래방’을 ‘커팅(歌厅)’, ‘연가방/련가방(练歌房)’이라고도 하는데 각각 중국어 ‘歌厅([gētīng])’과 ‘练歌房([liàngēfáng])’에 해당한다. 중국어 ‘歌厅([gētīng])’은 두 음절 모두 1성인데 지린성 옌지에서는 성조 없이 저조로 ‘커팅’이라고 하고 ‘练歌房’ 역시 저조로 ‘연가방’이라고 하므로 중국어 차용으로 본다.²² (1다)에서 중국어 爸爸([bàba])와 성조나 발음이 유사한

20) ‘뎨스(電視)’와 ‘꺀까일(鍋蓋)’는 각각 ‘텔레비전’과 ‘위성안테나’를 가리키는 말인데 모두 중국어 차용어다. ‘위성안테나’의 뜻으로 ‘가마/가매, 한국가매, 위성, 한국위성’ 등 다양한 변종들이 쓰이고 있다. ‘가마’나 ‘가매’는 모두 ‘가마술’의 방언형인데 위성안테나가 가마술 뚜껑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꺀까일(鍋蓋[guōgài])’는 ‘가마술 뚜껑’을 뜻하는 중국어다.

21) ‘지금은 경운기로 농사를 짓고 있다’는 뜻임.

22) ‘歌厅([gētīng])’의 중국어 발음은 ‘거탕’이나 ‘꺼탕’에 더 가까울 것이지만 체보자들이 이 말을 중국어로 인식하지 않으므로 차용이라고 보는 것이다. 어휘의 경우는 비표준 발음이나

‘빠바’는 중국어로 코드 뒤섞기가 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빠바’와 발음이 유사한 변이형 ‘빠빠’는 차용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지린성 조선족 사회 전체에서 조선말 ‘아버지’ 대신 모두 ‘빠바’로 교체된다면 차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²³⁾ 예문 (1라)의 ‘뎨스’와 ‘꺀까이’는 각각 ‘텔레비전’과 ‘위성안테나’를 뜻하는 말로 중국어 ‘電視([diànshì])’와 ‘鍋蓋([guōgài])’를 음차한 것이다. 이것을 차용으로 보는 이유는 둘 다 성조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과 이에 대응하는 조선말이 없다는 것이다. (1마)의 ‘뽕샹’은 중국어 ‘冰箱([bīngxiāng])’의 차용으로 성조가 반영되어 있지 않고 대응하는 조선말이 없다. 본래 ‘뽕샹’은 ‘아이스박스’를 가리키는 말인데 전기냉장고([電冰箱])의 약칭으로 쓰인다. ‘뽕샹’ 외에 ‘뎨뽕샹(電冰箱), 냉장고(冷藏庫)도 쓰이는데 ‘냉장고’는 한국 한자어의 영향으로 보인다. (1바)의 ‘소푸투라지’는 우리의 ‘경운기’에 대응하는 것인데 중국어 手扶拖拉機([shǒufútuōlājī])에서 온 말이다. 변이형으로 ‘소푸토라지/썬푸튀라지/스푸투라지’ 등과 줄임말 ‘소푸/소푸지’와 ‘투라지/톨라지/튀라지’ 등이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²⁴⁾ (1사)의 ‘뎨디(點滴)’는 ‘링거’에 대응하는 중국어로 매우 폭넓게 쓰인다. ‘뎨디’ 외에 중국어 변이형 ‘뎨질(吊針兒), 뎨핑(吊瓶), 뎨류(滴流)’와 ‘링게르’ 등이 쓰인다.²⁵⁾ (1아)의 ‘뽕골(冰棍兒[bīnggùnǐr])’과 ‘빙치린(冰激凌[bīngjīlíng])’은 각각 ‘아이스케이크’와 ‘아이스크림’을 중국어에서 중국어식으로 바꾸어 받아들인 말인데 이에

발음 오류가 많기 때문에 성조나 발음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차용 여부를 가리기보다 주로 화자들의 인식, 즉 중국어로 여기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였다.

- 23) 지린성과 라오닝성 지역에서는 ‘아버지’를 가장 많이 쓰고 헤이룽장성 지역에서는 ‘아버지’를 많이 쓴다. 중국어와 접촉이 많은 라오닝성이나 칭다오(靑島) 지역 등에서는 ‘아버지’를 ‘빠, 빠빠, 빠바’ 또는 ‘아빠’라고도 호칭하는데 ‘빠바’는 중국어를 그대로 쓰는 것이고 ‘빠’와 ‘빠빠’는 중국어에서 차용한 말, ‘아빠’는 한국어에서 차용한 말로 여기고 있다. 헤이룽장성의 동징성(東京城) 지역에 거주하는 한 제보자는 ‘아빠’라는 말은 조선족들이 한국에 왕래하면서 한국에서 배워 들어온 말로 근래에 쓰이기 시작하였다고 하였다. 한편 집거 지구에 거주하는 지린성 조선족들에 비해 산거 지구에 거주하는 라오닝성이나 칭다오 지역 조선족들의 중국어 사용 비율이 높고 나이가 젊을수록 중국어 사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박경래 외 2012: 202~205).
- 24) 러시아어 ‘трактор’을 차용한 ‘뜨락또르/뜨락또/뜨락뜨’ 등도 쓰인다.
- 25) ‘링게르’는 ‘Ringer’를 차용한 말로 본래는 ‘Ringer’s solution’ 또는 ‘an injection of Ringer’s solution’에 해당하는 ‘링거 주사’의 뜻으로 쓰인다.

대응하는 조선말 단어가 없기 때문에 중국어를 그대로 차용하여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차)의 ‘쏘지’는 ‘휴대전화’에 대응하는 중국어 ‘手机’([shǒujī])의 차용어다. ‘쏘지’ 외에 ‘수지/쭈지’와 ‘씨우지’ 등의 변종을 쓰기도 하고 ‘핸드폰’을 쓰기도 한다. ‘핸드폰’은 한국 사람들과 접촉하거나 한국에 왕래하면서 한국어에서 차용한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80% 이상) 조선족들은 중국어 차용어 ‘수지/쏘지’나 ‘씨우지’를 쓴다. (1차)의 ‘다두배차’는 양배추의 중국어 변종 大豆白菜([dàdòubáicài])의 조선말식 발음이다. ‘양배추’에 대응하는 중국어는 ‘大豆白菜, 大豆菜’ 계열의 어휘와 ‘疙瘡白’([gēdābái]), ‘嘎的白’([gādebai]), ‘嚙的白’([gādebai]) 계열의 어휘가 주로 차용되어 쓰인다. 중국어 표준어는 ‘洋白菜’인데 거의 쓰이지 않는다. ‘다두배차’ 외에 ‘다두배채/다두차이/다드배채/다드배차/따두배채/따드배채’ 등 다양한 변이형이 주로 지린성 지역에서 쓰인다. ‘大豆菜’는 ‘大豆白菜’의 준말인데 이것을 차용한 ‘따두채’ 계열의 변종이 쓰인다. 상대적으로 랴오닝성이나 헤이룽장성 지역에서는 중국어 변종 ‘疙瘡白, 嘎的白, 嚙的白’에서 유래한 차용어 변종 ‘까다바이/까다배/까달바이/까드배’와 ‘까달배차/까달배추/까두배차/까들배추’ 등이 다양하게 쓰인다. (1카)는 개혁개방 전에 집단으로 농사 짓던 것을 개혁개방과 함께 부분적으로 개인 소유를 인정하면서 황무지를 개간해서 농사를 지어도 된다는 설명을 할 때 ‘황무지를 개간한다’는 뜻의 중국어 ‘开荒’([kāihuāng])을 ‘캐황’으로 차용해서 쓴 것이다.

위의 예문 (1)에서 본 중국어 차용 어휘들은 몇 가지 특징을 보인다. 첫째는 중국어 차용어에 대응하는 조선말이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중국어 어휘를 조선말의 음운체계에 맞게 차용하여 조선말식으로 발음하는 것이다. 둘째는 중국어의 성조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셋째는 이들 어휘의 대부분에 대하여 중국어에서 차용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족들은 이들 어휘에 대하여 물으면 중국말에서 왔다고 한다. 결국 중국어라고 보기에는 음절구조나 음운체계가 다르고 다양한 변이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국어 차용어라고 해야 할 것들이다.

이러한 차용은 코드 뒤섞이의 전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예들은 중국어를 잘 구사할 줄 모르는 중국 이주 1세대나 이주 2세대의 노년층에서 주로

관찰된다. 조선말을 구사할 때 중국어에 대응하는 조선말 단어가 없거나 조선말 단어를 모르거나 잊었을 때 중국어에서 차용한 단어를 조선말 음운체계에 맞추어 사용하는 것들이다.

2.2.2. 코드 뒤섞기

옌벤 지역 이중 언어 사회에서 조선족들이 중국어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중국어를 차용하여 쓰는 앞의 예문 (1)과는 다른 유형의 예들이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예문 (1)에서 보았던 어휘들과 비슷하지만 차용어로 보기 어려운 예들이다. 두 번째 유형은 조선말로 대화하면서 중국어 어휘를 그대로 섞어 쓰는 경우인데 조선말과 중국어를 다 알고 있지만 중국어가 더 자연스럽게 선택되는 경우다. 세 번째 유형은 조선말로 대화하는 중간 중간에 수시로 중국어 어휘를 섞어 쓰는 경우다. 그리고 마지막 유형은 조선말에 중국어 어절이나 문장을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다. 이러한 예들은 모두 중국어에 기원을 둔 어휘를 조선말의 일부로 받아들여 쓰이는 차용어와 달리 중국어로 인식하고 발음도 중국어식으로 하는 어휘나 표현들이다.²⁶⁾ 중국어식 발음에 중국어의 특징인 성조까지 사용하게 되면 이들 어휘나 표현은 중국어라고 본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조선말을 사용하면서 중간 중간에 중국어를 섞어 쓰는 코드 뒤섞기라고 볼 수 있다. 다음에서 코드 뒤섞기의 예를 살펴보자. 먼저 중국어 어휘를 조선말 문장에 사용하는 경우인데 차용으로 보기 어려운 예들이다.²⁷⁾

(2)

가. 지금은 공즈(公資[gōngzī])가 마이 올랐소.

나. 여기두 따떠우차이(大豆菜[dàdòucài])를 마이 심었됐소.

26) '중국어식 발음'은 표준 중국어 발음은 물론이고 성조나 발음이 표준 중국어는 아니지만 화자들이 중국어라고 인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7) 송원양(2017: 2~3)의 기준에 따르면 이 글에서 코드 뒤섞기로 보는 어휘들은 모두 차용어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 다. 새로 쓴 써우지(手機[shǒujī])가 너무 복잡해서 쓰기가 바쁘담 말이오.
- 라. 빨리 가게 쟁비엔(江邊[jiāngbiān])으루 가지머.
- 마. 시내 아무데나 땡(訂[dìng])해 먹지 머.
- 바. 예전에는 아버지라고 했는데 요새는 빠빠나 빠마(爸爸[bàba])라구두 하오.

위의 예문 (2)는 중국어 표준 발음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어에 사용하는 한국 한자음으로 발음하지 않고 중국어에 가깝게 발음한다는 점에서 차용과는 구별해야 할 것들이다. 예문 (2가)에서 월급에 해당하는 중국어 ‘公資[gōngzī]’를 예문 (1가)에서처럼 한국 한자음으로 발음하여 ‘공자’라고 하면 차용어가 되지만, 성조까지 반영한 ‘[gōngzī]’로는 발음하지는 않더라도 조선말에서 쓰이지 않는 ‘즈([zi])’를 써서 ‘공즈’로 발음한 것이다. 이런 경우는 중국어로 보아야 할 것이다. (2나)의 ‘따더우차이(大豆菜[dàdòucái])’는 예문 (1차)에서와 같이 ‘따두차이’나 ‘다두차이’라고 발음한다면 차용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겠지만 ‘豆’에 대응하는 중국어 발음 [dòu]에 가깝게 발음하므로 중국어로 보아야 할 것이다. (2다)의 ‘써우지(手機[shǒujī])’도 조선말 한자음을 반영하여 (1자)에서처럼 ‘수지’나 ‘쏘지/쑤지’와 같이 2음절로 발음한다면 차용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예문에서와 같이 手를 [shǒu]와 같이 발음하여 중국어 발음에 가깝게 3음절로 발음하므로 중국어로 보아야 할 것이다. (2라)의 ‘쟁비엔(江邊[jiāngbiān])’은 연변 조선족들이 흔히 쓰는 조선말식 한자어 ‘강변’ 대신 성조를 반영하여 3음절로 발음한 중국어로 보아야 한다. ‘江邊’은 연변 지역에서 ‘강변’이라고 발음하는 것이 보통이나 예문의 경우는 강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중국어 발음 ‘쟁비엔(江邊[jiāngbiān])’으로 발음한 것으로 보인다.²⁸⁾ (1마)의 ‘땡(訂[dìng])’은 동사로 ‘정하다, 주문하다, 예약하다’의 뜻으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주문하다’의 뜻으로 쓰였다. 한국어식으로 말하면 ‘시키다’나 ‘주문하다’ 정도의 뜻으로 쓰는 말인데 부정확한 성조를 제외하고 중국어식으로 발음한 것이

28) 이 예문은 운전자인 화자와 필자 그리고 다른 조선족 화자가 함께 승용차를 타고 가면서 한 말이다. 빠른 길로 가기 위해 거리가 조금 멀더라도 강변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표현이다.

다. ‘땡(订[dìng])’을 차용어로 사용했다면 예문은 ‘시내 아무데나 정해 먹지 땡’과 같이 말했을 것이다. (1바)의 ‘빠바(爸爸[bàba])’는 앞에서도 논의했듯이 ‘빠’나 ‘빠빠’와 달리 중국어 발음과 성조도 같다는 점에서 차용으로 보기 어렵다.

예문 (2)의 밑줄 친 예들은 앞의 예문 (1)과 달리 중국어를 그대로 가져다 쓴 것이다. 예문 (1)이 중국어 어휘를 가져다 조선말 음운체계에 맞게 차용한 것인데 비해 예문 (2)는 대체로 조선말을 구사하는 문장에 중국어 단어를 가져다 쓴 것이다. 예문 (2)와 같은 코드 뒤섞기의 특징은 조선말을 주로 하다가 이따금씩 중국어 단어나 어절 또는 문장을 사용한다는 것과 대체로 중년층 이상 노년층에서 주로 사용한다는 것, 그리고 차용과의 구별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²⁹⁾

앞의 예문 (2)와는 달리 아래의 예문 (3)은 중국어를 어느 정도 구사할 줄 아는 이중 언어 화자들이 조선말로 이야기를 하는 중간에 이따금씩 중국어 어휘나 문장을 섞어 쓰는 코드 뒤섞기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예들은 주로 중년층 이상의 화자들에게서 관찰된다.

(3)

가. 이력하구 또 ㄱ:내 났다 말이여. 게 들어갔을 적에 훈춘에서 “따:또: 등소평:: (打倒 邓小平[dǎdǎo Dèng xiǎopíng])” 할 적에는 머여 아주 등소평일 타도하라. 나. 게 성장(省长)이 주:장(州長)한테 머라구 했는지. “这个是说不开口[zhège shì shuì bùzhòng kāikǒu]; 이거 입 밖에 내서 말하지 마라.”³⁰⁾ 말했다 말이여. 게 그 이거 인재 번역 하자면 “이: 문건일 누구두 입 밖에 내놓지 말라” 이 소리지. “부중카이커(不开口[bùzhòng kāikǒu]; 입을 열지 마라).” 그룽개 ‘카이커(开口[kāikǒu]; 입을 열다)’라능 게 입얼 열지 말라.³¹⁾ 이룽기 딱: 땡:지.³²⁾

29) 예문 (2)의 (가~)는 60대 이상의 노년층에서 사용한 예들이고 (라~마)는 4, 50대에서 사용한 예들이다.

30) ‘이거 입 밖에 내지 마라’는 중국어로 ‘这个是说不开口的’이나 ‘这个是不能说的’라고 말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한다. 중국인 유학생에 의하면 요즘 중국어로는 예문과 같이 말하지 않는다고 한다.

31) ‘카이커(开口[kāikǒu])’는 ‘입을 열지 말라’가 아니고 ‘입을 열다’인데 앞의 문장을 설명하면서 잘 못 말한 것이다.

(3)의 예들은 80대 화자가 과거에 겪었던 일화를 소개하면서 한 말인데 전체 두 시간 이상의 발화 가운데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있었을 때를 극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중국어 뒤섞기를 하여 당시 장면을 생생하게 설명하려는 것이다. (3가)는 개혁개방과 함께 등소평이 중국 정치의 전면에 나설 때 건국 공로자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자 연금을 지급해달라고 시위하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당시에 사용한 중국어 구호를 그대로 말한 것이다. (3나)는 (3가)와 같은 시위 과정에서 지린성 성장(省長)과 조선족 자치주 주장(州長) 그리고 시위 대표자들과 담판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화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중국어로 말한 것이다. 초기의 언어 뒤섞기는 이렇게 중요한 대목에서 이따금 중국어를 섞어 쓰는데 비해 중년층이나 장년층 이하에서는 아래의 예문 (4)에서와 같이 이야기 중간 중간에 중국어를 자주 섞어 쓴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4)

가. A: 여기 기준이 대단히 좋지.

B: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태풍 없지, 응, 空气空气([kōngqì kōngqì], 공기 공기) 좋지.

C: 떡거리, 떡거리 안전하지.

나. A: 그 사람은 그럼 이전([반드시]) 잡어 내놔야 된다.

B: 그거 정말 온전한 사고지.

A: 그래 몇 십 명 죽었어, 백 명 죽었어, 백 명 넘어 죽었는데.

B: 하여튼 십 몇 명이 죽었다고 난, 가지꺼징([최대]) 십 몇 명이 죽었다고.

A: 오: 110个人([yībǎishí gè rén])입다. 110个人([yībǎishí gè rén]).

A: 맞아요.

다. A: 이 그런 점, 그런 점 있으니까 학생의 숙사 문제를 뭐 제기를 해야 되겠어.

B: 어쨌.

A: 아이 난 듣기를 이 우리 애들이 이렇게 야똥(학년) 이상 다 같이 나가 구숙사 居([jū], 거주) 한다(는) 말 들었어.

B: 옳습다. 예 예.

32) 이 예문은 박경래(2011: 54)의 자료에서 가져온 것을 중국어와 조선말로 표기한 것이다.

- C: 그래구 어찌 어떤 학원어는(학교는) 외:지에서 온 아들두(아이들도) 막 자리 없다. 계구(그리고) 야들(애들) 여기 안 두면 기계(그게) 어티게(어떻게) 기회를 줄 수 있어 근데.
- B: 그래 내놔야지. 그러니까. 对口的那个([duikǒu de nàge], 맞네 그거) 해서.
- C: 그래 이 무슨 관리여~.
- A: 세금은 또 더 비싸게 받고.
- C: 천 양백 원(천 이백 원)에 줬다더라. 그람 가가(개가) 얼마 벌었음까?
- C: 여기 학교 숙사(기숙사)가 게 그 등급 무조건 跟外地生也([gēn wàidìshēng yě], 다른 지역 학생들과 똑같이).
- B: 그렇지.
- A: 那个人([nàgèrén], 그 사람).
- B: 소친이 돈받고.
- C: 소친이 관리를 안 해 노니까...
- C: 학교 관리가 없어.
- C: 那年我上学习是八三年的时候([Nà nián wǒ shàng xuéxí shì bā sān nián de shíhòu], 그 해에 우리가 학교 갔을 때는 83년 무렵인데) 학교(에) 싹 가면은 그저 그 都贴了吗([Dōu tiē le ma], 다 붙였겠지).
- C: 딱 붙여 났어. 내 그릇게 뭐 해서 우리 조선족인가보다 그랬다 말임다.
- C: 내 두 개 다 아이다, 아이 된다 하매. (그런데) 이거 뭐 그른 게 없다 말이여. 먼저 들어간 기계) 먼저 자리 차지를 하구 있는단 말이여 야:~
- A: 然后开始学习([ránhòu kāishǐ xuéxí], 그리고 공부를 시작해).
- B: 맞아요.
- C: 재작년에 올 때 또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 데루(데려)갔다가 내 이진 아인데(아닌데) 거저 그랬다가. 좀 낮게 그때 고만 그랬덴다.
- B: 一样的呀([yíyàng de ya], 다 똑같이).

위의 예문 (4가)는 엔지에 거주하는 40대와 50대 여성들이 지린성 엔지의 자연환경이 살기에 좋다고 이야기 하면서 태풍이 없고, 먹을거리도 안전하고 공기도 좋다고 하는 대목에서 ‘공기’를 중국어로 말한 것이다. 예문 (4나)는 화재로 인해 인명피해가 났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죽은 사람 숫자가 ‘110명’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가운데 중국어 표현을 섞어 쓴 것이다. (4다)는 화자들이 예전에 학교 다닐 때의 이야기와 요즈음

의 학교 기숙사에 관한 이야기의 일부를 옮겨 온 것인데 예에서 보듯이 대화 중간 중간에 코드 뒤섞기가 자주 나타난다. 코드 뒤섞기라는 점에서만 보면 앞에서 살펴본 예문 (3)과 예문 (4) 간에 차이가 없다. 그러나 코드의 정교함이나 사용 빈도에서는 차이가 있다. 예문 (3)은 80대의 노년층 화자의 이야기에서 가져온 것인데 전체를 전사한 68쪽 약 2,176행 가운데 관찰된 총 6회의 코드 뒤섞기 중 네 개를 제시한 것이다. 이에 비해 예문 (4)은 40대와 50대 화자들의 이야기에서 일부를 가져 온 것으로 예문 (4)에서 보듯이 26개 문장 가운데 8회의 코드 뒤섞기가 관찰되었다. (4)의 전문을 전사한 402행 가운데 94회의 코드 뒤섞기가 관찰되어 노년층에서보다 중년층에서 코드 뒤섞기를 훨씬 자주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노년층에 비해 중년층 이하 화자들의 학력이 높은 것과는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노년층의 경우 대체로 학력이 낮아 상대적으로 중년층이나 장년층에 비해 이중언어 사용이 유창하지 않고 코드 뒤섞기를 하더라도 비표준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4)와 같은 예에서 보이는 코드 뒤섞기는 앞의 예문 (2)나 (3)에서 본 코드 뒤섞기와는 달리 완벽한 중국어 어휘나 표현을 구사할 뿐만 아니라 사용 빈도도 잦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코드 뒤섞기는 40대나 50대 화자들, 특히 학력이 높은 화자들 간의 대화에서 더 자주 관찰되고 60대 이상의 노년층에서는 한족학교를 다녀 중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이중언어 화자들에게서 자주 관찰된다. 중년층 이상의 화자들 가운데 공식생활을 오래한 경우는 퇴임 후에도 일상 대화에서도 코드 뒤섞기나 코드 바꾸기가 자주 일어나는 것이다.³³⁾ 이러한 사실은 코드 뒤섞기의 사용 정도가 이중언어 사용 능력과 관련이 있고 이중언어 사용 능력은 화자의 연령이나 학력 등 사회적인 배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3) 자료 조사 과정에서 50대의 한 여성은 조사자와는 유창한 우리말로 대화하면서 자녀들과는 중국어로 대화를 하였다. 이 여성의 자녀들은 한족학교를 다녔고 취업도 대도시의 중국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하였다. 중국에 살면서 중국어를 잘해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자녀가 한국어를 잘 몰라 한국에 출장을 다닐 때 어려움이 많다고 하면서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2.2.3. 코드 바꾸기

코드 바꾸기는 코드 뒤섞기보다 한층 진전된 언어 선택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코드 뒤섞기가 문장의 단위로 나타날 때는 코드 바꾸기와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이 때문에 이 글에서는 우리말 문장 가운데 중국어 단어나 구를 섞어 쓰는 경우와 우리말 문장 안에 중국어 문장을 섞어 쓰는 경우 그리고 대화 중간에 하나의 문장만을 일시적으로 중국어로 쓰는 경우는 앞 절에서와 같이 코드 뒤섞기로 보았다. 여기에서는 대화나 강연 등에서 조선말을 사용하다가 두 문장 이상을 중국어로 바꾸어 쓰는 경우를 코드 바꾸기로 정의하되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하나의 문장이 억양이나 문법 구조가 완전히 중국어와 같으면 코드 뒤섞기로 보고, 억양이나 문법 구조가 완전히 중국어와 같은 두 개 이상의 문장을 연속적으로 사용할 때는 코드 바꾸기로 보고자 한다. 조선족들의 코드 바꾸기(코드 전환)는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가족 간의 대화나 친구 간의 대화, 전문직 종사자들 간의 대화에서 종종 관찰된다.

가족 간의 코드 바꾸기를 보여주는 예로 지린성 둔화시 셴유진 리신촌(吉林省敦化市贤儒镇立新村)에 거주하는 임씨 할아버지 가족(할아버지 내외, 아들 형제) 간의 대화를 들 수 있다. 둔화시 셴유진은 개혁개방 이전까지는 충청남도 이주민들의 집거지역이었고 주변 지역은 한족들의 집거지역이었으나 지금은 한족과 마을을 양분하여 거주하고 있는 곳이다. 이 때문에 이 마을의 중년층 이하 세대들은 소학교는 조선 학교에 다녔지만 초중이나 고중은 한족 학교에 다니게 되어 중국어를 자연스럽게 쓰는 곳이다.³⁴⁾

임씨 할아버지 가족은 70대 후반의 노부부와 큰아들 그리고 둘째 아들이 함께 살고 있다. 큰아들은 조선족 소학교를 졸업하고 한족 초중학교와 고중학교를 다녔는데, 작은 아들은 소학교부터 고중학교까지 모두 한족 학교를 다녀 둘 다 중국어를 유창하게 구사 한다. 70대인 임씨 할아버지는 40대

34) 소학교는 우리의 초등학교에 해당하고, 초중은 우리의 중학교, 고중은 우리의 고등학교에 해당한다.

초반에 몸을 다쳐 이후 집에서만 생활하고 계셨고 역시 70대인 할머니는 활동적인 성격으로 부녀주임 등의 역할을 맡아 한족들과 교류하면서 자연스럽게 중국어를 습득하였다. 50대 중반의 큰아들은 고중 졸업 후 한동안 외지 생활을 하다가 40대가 되어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조선말도 유창하게 구사한다. 50대 초반의 둘째 아들은 약간의 소아마비 장애가 있어 집에서 부모님을 도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외지 경험이 없다. 조선말을 알아들을 수 있고 간단하게 의사소통을 하지만 긴 문장이나 복잡한 내용은 가족 간에도 중국어로만 소통한다. 이러한 언어적 배경을 가진 가족들이 점심 식사 전에 나눈 다음의 대화는 코드 바꾸기와 코드 뒤섞기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5)

모: 선생님 내가 한국에 나가 보니까(보니까) 한국에도 못 사는 사람 많데요 뭐.

부: 그렇겠지이~, 어디 가나 그런 사람이 있구만요~.

자1: 그래두 한국에는 지금 먹을 거 얻으러 다니는 사람은 없단데.

자2: 不是([búshì] 아니야). 有([yǒu] 있어).

자1: 没有([méiyǒu] 없어).

자2: 선생님, 有没有([yǒuméiyǒu] 있어요, 없어요)?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자1과 자2가 조선말과 중국어를 번갈아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들 가족 간의 이야기에서는 예문 (3)과 같은 상황을 자주 관찰할 수 있었다. 위의 사례는 자2가 조선말을 잘 구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자2를 위해 중국어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족 간에서만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과의 일상 대화나 이야기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관찰된다.

임씨 가족이 사는 둔화시 셴유진의 경우 60대 이상에서 조선족들끼리는 대부분 조선말로 대화를 하지만 고유명사나 중국 특유의 문화나 전통 등과 같이 중국어로만 표현해야 하는 경우에는 코드 뒤섞기를 하거나 코드 전환을 하였다. 그러나 30대나 40대의 장년층, 특히 청소년층은 중국어가 모어인 화

자들이 대부분이었고 소학교 학생들은 조선말을 어느 정도 알아 듣기는 하지만 말하기는 대부분이 중국어로만 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어린 학생들과 부모들 간에는 중국어로 대화하는 것이 일상화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고 상대적으로 조선말로 대화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이런 현상은 둔화시의 조선족 마을의 대부분이 그러하듯이 이 마을도 한족 마을에 둘러싸여 있고, 개혁개방 이후 마을 주민의 절반 이상이 한국이나 타지로 이주하면서 그 자리에 한족이 들어와 살고 있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둔화시와는 달리 조선족들이 비교적 많이 거주하는 엔지시와 인근의 룡정시 등에서는 조선말을 모어로 하는 화자들이 많지만 대화 상황이나 대화 참여자들의 사회적 배경에 따라 언어 뒤섞기나 언어 전환을 보여주는 경우를 종종 관찰할 수 있다. 고학력자들이나 공무원, 전문직 종사자들의 경우 토론이나 특정 사건 등을 주제로 하는 대화에서는 세대에 관계없이 코드 뒤섞기나 코드 바꾸기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젊은층, 특히 청소년층에서는 코드 바꾸기가 일상화되어 있다. 다음에서 대화 참여자들이나 대화 주제에 따라 코드 뒤섞기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런 현상이 향후 조선족들의 언어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하여 논의해보기로 한다.

코드 바꾸기의 예는 아래 예문 (6)에서 보듯이 모든 연령대에서 관찰된다. 다음의 예문 (6)은 50대(A)와 60대(B) 화자가 산둥성에서 일어났던 폭발 화재로 인한 사망 사건에 대한 대화 내용이다.

(6) 화재로 인한 사망자에 대한 이야기_ 50대 60대

A: 근데 그 소방대원들이 많이 죽었던 말입니다. 그 과정이 문제지.

C: 원인이 있잖কা?

B: 어린애들이 다 올라가고 소방대원들두 지내 간부들 다 뒤에 앉아 있었지.

A: 역사 이래 대규모로 죽은 건 처음이라대.

B: 至始至终, 没有一个人跟我们说, 不汗哦, 不汗哦 不要进水. (Izhishizhizhong méiyǒuyíjièrén gēnwǒmenshuō bùhǔò búyào jìnshuǐ)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도 우리한테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어.)

A: 아이 원래 *** 메고 해야 되지, 이걸 다른 방법 써야 되지.³⁵⁾

- A: 이거 메고 하는 게 물두 있고 무스거두 있고 많잖까?
 A: 그런데 그게 거기에 七百吨([qī bǎi dùn] 칠백 톤) 있음 원래 아이 된다.
 A: 근데 그게 七百吨([qī bǎi dùn] 칠백 톤) 있으니까 쉬쉬했지.
 A: 本身就是违反了安全要求. ([gēnshēnjiùshì wéifǎnle ānquán[yāoqiú] 근본적으로 안전요구를 위반한 거야.)
 A: 居民区那附近的地方怎么会有一百吨的那个东西? ([jūmínqū nàyāojìn de dìfāng zěnyāo huìyǒu qī bǎi dùn de nèige dōngxi] 주택가 인근 가까운 곳에 어떻게 약 700톤의 그 물건이 있을 수 있어?)
 A: 错就错在那儿. ([cuò jiù cuò zài nàr] 잘못이 바로 거기에 있지.)
 B: 거기서부터 잘못 됐지 뭐.
 A: 응.

위의 예문 (6)에서 화자 A, B는 둘 다 여성이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화자 A가 폭발 화재로 소방대원과 어린애들이 죽었는데 그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다. 화재로 인해 소방대원과 아이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조선말로 시작하였고, 화재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인 폭발물 700톤과 그것이 주택가 인근에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대피시키지 않았다는 과실을 이야기하면서 코드 뒤섞기와 코드 바꾸기를 하며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전체 12개 문장 가운데 여섯 개의 문장은 조선말로 하고 두 개의 문장은 문장 내 코드 뒤섞기를 하였다. 한 개의 문장은 문장 간 코드 뒤섞기를 하였고, 세 개의 문장은 연속해서 중국어로만 말한 다음 다시 조선말로 하는 전형적인 코드 바꾸기의 사례를 보여준다. 이러한 사례는 40대(A)와 50대(B) 여성 화자들 간의 대화 (7)에서도 관찰된다.

- (7)
 A: 그러니까 누가 뒤로 안 봐주면 저거 못한다는 거요.
 B: 그래 중국에서 감히 못하지 어느 센 사람이...
 A: 어느 사람이 뒤를 봐주면 저 일을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B: 국가에도 있다 말이야 이게, 캐지 못해지.

35) 예문에서 * 표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음절 수 만큼 표시한 것이다.

A: 그래니까 지금 자꾸 은혜를 할라고 그래지.

B: 온 나라가 뒤집혀야 되지.

A: 那姑娘的名字叫张高立. ([nà gūniangde míng jiào zhānggāoli] 그 여자 이름은 장고립.)

A: 张高立的亲家就是她的所有属. ([zhānggāolide qīngjiā jiù shì tāde suǒyǒushǔ] 장고립의 사돈이 바로 그녀의 가족이다.)

B: 唉, 于小龙我推荐那本经典列刊. ([āi, yúxiǎolóng wǒtuīzhē nà běn jīngdiǎn lièkān] 그래, 우소룡이 나한테 추천해준 그 전형적인 잡지.)

B: 요새 그런 게 없어.

B:젠데 그게 뭐 조금 관건이 있는데 그 집은 저게 차원이 사람인가?

A: 我的国家, 啊!([wǒde guójiā, a] 우리나라, 아!)

政治局常委. ([zhèngzhìjú chángwěi] 정치국 상무위원.)

B: 嗯~. ([ng] 응.) 政治局常委 张高立就他在天津出生了. ([zhèngzhìjú chángwěi zhānggāoli jiùtāzài Tiānjīn chūshēngle] 정치국 상무위원 장고립은 천진에서 태어났어.)

위의 예문 (7)은 부패 사건에 대한 대화인데 처음에는 조선말로 하다가 중국어로 코드 바꾸기를 하였다. 이어서 다시 중간에 조선말로 바꾸었다가 바로 중국어로 코드 바꾸기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전체 대화의 기초는 조선말이지만 대화 중간 중간에 중국 사람이거나 중국 사람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 될 때는 자연스럽게 중국어로 코드 뒤섞기나 코드 바꾸기를 하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대화 도중에 코드 뒤섞기나 코드 바꾸기를 쉽게 한다는 것은 대화 상대나 대화 내용에 따라 언제든지 코드 바꾸기를 하는 이중 언어 사용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 앞에서 살펴본 노년층 화자들의 경우 코드 바꾸기는 아주 드물게 관찰되고 이따금씩 코드 뒤섞기가 관찰되는데 비해 중년층이나 장년층에서는 코드 뒤섞기는 물론이고 코드 바꾸기도 자주 관찰된다는 점에서 조선족 사회에서도 상위 언어인 중국어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동안 중국 조선족, 특히 연변 지역의 조선족들은 우리말을 잘 보조해왔고 지금도 잘 보존하고 있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가 현재의 언어 사용 환경이나 언어 사용 실상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족들의 대화에서 코드 바꾸기는 젊은층으로 갈수록 급속히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대학생들 간의 다음과 같은 대화에서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8)³⁶⁾

학생1: 吃饭了([chīfànle]; 밥 먹었니)?

같이 먹지요(같이 먹자).

학생2: 吃了([chīle]; 먹었어)!

학생3: 안 먹었으면 같이 먹지요(안 먹었으면 같이 먹자).

來([lái]; 이리 와)! 一起吃吧([yìqǐchībā]; 한 번 먹어봐)!

학생2: 먹었던 말이.

我吃完了([wǒchīwánle]; 나는 먹었어).

你們吃吧([nǐmēnchībā]; 너희들 먹어)!

학생3: 참말로 먹고 왔소?

위의 예문 (8)은 조선족 학생들끼리 점심 식사 시간에 밥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내용이다. 예에서 보듯이 동일한 인물이 조선말을 사용하는 가운데 중국어로 바꾸어 사용하는 전형적인 코드 바꾸기의 예를 보여준다. 학생1, 2, 3이 중국어와 조선말을 번갈아 사용하는 코드 뒤섞기를 하고 이어 학생3과 학생 2가 조선말을 한 다음 연속해서 중국어를 사용하는 코드 바꾸기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예다. 대학생들의 경우 집에서는 조선말을 사용하면서 성장했고 학교에서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한어를 배웠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중 언어를 사용할 수 있고 이것이 위의 예문 (8)과 같이 일상 대화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중 언어 사용 상황에서 코드 바꾸기는 어릴수록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의 예문 (9), (10), (11)은 모두 초중학생들의 일상 대화를 적은 것이다.

(9) 초중학생들 간의 대화

A: 복현아!

你知道那个? ([nǐ zhīdào nàjiè] 너 그거 알아?)

36) 예문 (6)은 임형재(2006: 131~132)에서 인용한 것임.

- B: 你知道? ([nǐ zhīdào?] 너는 알아?)
 我不知道啊(哇). ([wǒ bùzhīdào a(wa)] 난 몰라.)
 C: 이 안에 지금 뭐 있니?

(10) 초중학생들 간의 대화³⁷⁾

- A: 잼(게임) 하러 가자.
 B: 丟破爛. ([diūpòlàn] 쓰레기 버려.)
 哎. ([āi] 아이고.)
 A: 집에 가서 하자구.
 C: 到了. ([dàole] 도착했다.) 哈哈哈([hahaha] 하하하.)

(11) 초중학생들 간의 대화

- A: 김인정, 김인국 직접 만났거든.
 B: 어 잘했다.
 한족이 조선말 알아들어?
 A: 看他們??听力沒問題. ([kàntāmen?? tīnglíméiwèntí] 그 사람들 듣기 연습하는데 문제없어.)
 A: 現在在學的過程. ([xiànzàixuédeguòchéng]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거든).
 A: 听不懂, 但是他意思能明白. ([tīngbùqǐn, dànshìtāyìsī néngmíngbai] 못 따라하지만
 만 뜻은 거의 다 알 수 있어.)
 A: 오~ 좋지. 하하하하
 B: 不行, 我是零基礎開始的. ([bùxíng, wǒshìlíng jīchǔkāishǐde] 안 돼. 난 처음부터
 시작했어.)
 B: ** 忍忍 你念着念着就會了. (** rěnrěn nǐniànzhe niànzhe jiùhuìle] 좀 참아 읽기
 만 하면 돼.)
 AB: 하하하하.
 B: 내 가방 줘.

위의 예문 (9)와 (10)은 조선족 초중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37) 예문 (10)의 대화는 학교 앞에서 초중학생들이 하교하면서 한 말이다. 앞뒤가 연결되지 않는 듯하지만 학생들끼리는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던 차에 채록된 말이다. 여기서는 이야기의 논리성이나 연결성을 보는 것이 아니고 조선말과 중국어의 코드 바꾸기를 보여주는 예들로 인용한 것이다.

돌아가기 위해 교문을 나서면서 하는 대화다. 예문 (9)는 A학생이 B학생(북현)의 이름을 부르고 중국어로 코드 바꾸기를 하니 B학생도 중국어로 응답하는 장면이다. 이어 C학생은 다시 조선말로 코드를 바꿔 사용하고 있다. 예문 (10)의 경우도 예문 (9)와 비슷하다. 역시 학교 수업을 마치고 교문 앞에서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는 장면이다. A학생이 조선말로 게임할 것을 제안하자 B학생이 중국어로 코드 바꾸기를 하고 다시 A가 조선말로 코드 바꾸기를 했지만 C는 다시 중국어로 코드 바꾸기를 하면서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대화 내용만 보면 제3자는 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A가 게임하러 가자고 제안할 때 B는 가지고 있던 쓰레기를 버리라고 하자 A가 다시 집에 가서 게임을 하자고 하는데 C에게 다른 학생이 집에 도착했다고 전화가 온 것을 전해주면서 웃는 장면이다. 예문 (9)와 (10)에 등장하는 학생들은 조선족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로 조선어를 모어로 하고 중국어를 제2언어로 하는 이중 언어 화자들이다. 옌벤 지역의 경우 조선학교에서 조선족 교사는 조선말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족 교사는 중국어로 수업을 진행한다.³⁸⁾ 이에 따라 조선족학교에서조차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조선말과 중국어를 넘나들면서 코드 바꾸기 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³⁹⁾

옌벤 지역의 코드 바꾸기 양상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예는 어른들과 학생들이 함께 대화하는 장면에서 잘 나타난다. 다음의 예문 (13), (14), (15)는 옌지에 거주하는 40대 학부모들과 초중학생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게임과 관련하여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내용을 전사한 것이다.

38) 2015년 지린성 창춘시의 조선족 고등학교(교장 윤태수)를 방문했을 때 조선어 과목이 아닌 경우 조선족 교사들도 중국어로 수업하는 경우를 여러 번 볼 수 있었다. 물론 한족 교사들은 모두 중국어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지린성 옌지시의 조선족학교에서도 조선어 과목이 아닌 경우 중국어로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다.

39) 참고로 2012년 헤이룽장성 상주시의 조선족고등학교를 방문했을 때는 교내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조선말로 대화했는데 2015년에 같은 학교를 방문했을 때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정에서 중국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만큼 언어 사용 양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3)

A: 这是錢嗎? ([zhè shì qián ma] 이게 돈이야?)

你得交錢嗎? ([nǐ děi jiāo qián ma] 돈을 내야 돼?)

B: 不是, 我的家... 是金幣. ([bùshì, wǒdejiā...shì jīn bì] 아니요, 우리집... 금화인데
요.)⁴⁰⁾

A: 嗯, 他給你 金幣不呀? ([èng, tā gěi nǐ tā gěi nǐ jīn bì bù ya] 응, 그 사람이 너한테
금화를 주잖아?)

B: 在跑酷中有金幣. ([zài pǎo kù zhōng yǒu jīn bì] 게임에 금화가 있어요.)

A: 哦~! ([ó] 아~!)

B: 等一下獲得 那個金幣, 才能. ([děng yí xià huò de nà jiè jīn bì, cái néng] 그 금화를
획득할 수 있도록 일단 기다려요.)

A: 這麼玩?([zhème wán] 이렇게 놀았어?)

(14)

B: 都飛起來嘍! ([dōu fēiqǐ [lái]lōu] 嘍! [lou] 都是這樣的. ([dōu shì zhè yàng de])

A: 啊~! 是嘛? 是嗎? ([a~! shìma? shìma?] 아 그래? 그런 거야?)

B: 誰都打不過我 人才嘛你. ([shéi dōu dǎ bù guò wǒ rén cái má nǐ] 누구도 나를
이길 수 없어.)

A: 嗯, 很靈活? ([èng, hěn líng gòu] 아, 그래?)

A: 我都說了. ([wǒ dōu shuō le] 내가 얘기했어.)

A: 你反映快這個. ([nǐ fǎn yǐng kuài zhè ge] 넌 이거에 빨리 반응해.)

A: 준응이는 반응이 늦어서 안 돼.

B: 반응이 늦어서, 아~.

A: 那怎麼不也得看一下嗎?([nà zěnmē bù yě dé kàn yí xià ma] 그거 어떻게 한번
볼 수 있어?)

(15)

A: 우리야 뭐 이제 개학이 별로 없지요 뭐. 이래다가 무슨 학교에 무슨 일 있을
또 나오고.

C: 이진, 계속 나오잖아요?

A: 거의 아주 집에 저기 누가 동생네 애 데리구 와서 요 며칠 못 나오고 예.

40) 여기에서의 '금화'는 게임 아이템을 말한다.

빨리 뛰, 할 거 마무리할 게 있는데 아직 다 못해서.

B: 야, 빨리 빨리 해야 되는데.

C: 선생님 딸애는?

A: 우리 이제 올라가면 중학교 삼학년.

C: 今年? ([jin nián] 올해?)

A: 저, 今年是. ([duì, jīn nián shì] 예, 금년에.)

A: 집에서 계속 놀고 있어. 다른 애들은 무슨 뭐 한단데 이제 늦잠 자기 이제 일어나구 ‘엄마!’ 이러구 찾아.

(16)

B: 啊! ([a] 아!) 这个 这个就是那个UFO的那个. ([zhègè zhègè jiù shì nàgè UFO de nàgè] 이거 이거, 저거 UFO잖아 저거.)

B: 外星人. ([wài xīng rén] 외계인.)

D: 소리지르지 마!

B: 那UFO吗! ([nà UFO ma] 저거 UFO잖아!)

D: 저, 저 UFO. ([duì, duì UFO] 맞아 맞아 UFO.)

위의 예문 (13)~(16)은 전체 5분 15초 분량의 대화 내용 가운데 일부를 보인 것이다. A와 C는 40대의 여성 학부모이고 B와 D는 게임을 하고 있는 남자 초중학생이다. 예문 (13)은 A가 게임 아이템에 대하여 물어보자 어떻게 그것을 획득하는지 학생이 알려주는 내용이다. 예문 (14)는 게임을 하는 방법, 즉 게임의 실체를 설명해 주는 내용인데 거의 중국어로만 대화하고 있다. 예문 (15)는 40대 화자의 연구에 관한 이야기와 아이, 즉 자녀의 생활 태도에 대한 이야기다. 예문 (16)은 초중학생들이 하고 있는 게임 장면에 나오는 UFO에 대한 이야기다.

위 예문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40대 화자와 초중학생 간의 대화와 40대 화자 간의 대화 그리고 초중학생들 간의 대화가 섞여 있는 예문이다. 예문에서 보듯이 게임과 관련해서는 주로 중국어로 대화하고 일상생활과 관련해서는 조선말로 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중국어로의 코드 바꾸기는 예문 (13), (14), (16)에서 보듯이 남학생들에게서 더 자주 관찰되었는데 현지 학생들은 이러한 결과가 게임과 관계가 있다

고 증언하였다. 한 초등학교 여학생의 설명에 의하면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에 비해 게임을 훨씬 많이 하는데 게임 언어가 중국어이기 때문에 게임을 통하여 중국어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아 여학생들보다 중국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다. 위의 예문 (13), (14), (16)에서 보듯이 게임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야기할 때는 처음부터 중국어로 이야기하다가 일상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말할 때는 조선말로 코드 바꾸기를 하고 다시 게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는 중국어로 코드 바꾸기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 비해 중국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남학생들이 게임을 많이 하기 때문이라는 여학생들의 평가와 부합한다.

이상과 같은 코드 바꾸기가 더 확산되고 일반화된다면 조선족들은 중국어로 언어 선택을 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중국어로의 언어 전이(language transition)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현재의 조선족들이 사용하는 조선말은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이 글은 이중 언어 사회인 중국 지린성 옌벤자치주 지역 조선족들의 언어 정체성과 언어 태도의 변화를 실제 언어 사용과 관련지어 살펴보는 것이 목표였다. 즉 조선말은 점차 없어질 것이고 앞으로 지린성 조선족들이 사용할 1순위 언어는 중국어가 될 것이라는 언어 태도의 변화가 구체적인 언어 사용 맥락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 목표였다.

중국의 조선족 사회는 중국의 개혁 개방과 한중 수교 이후 조선족들의 이합과 집산으로 인한 조선족 사회의 변화로 인해 언어 사용 양상도 상당한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중국 지린성 조선족 사회에서도 시간이 갈수록 중국 사회에 동화되는 정도가 심화되고 코드 뒤섞기나 코드 바꾸기의 정도도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선족 사회의 변화에 따른 언어 정체성의 변화로 인한 언어 태도의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언어 정체성과 언어 태도의 변화는 언어

사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실제 언어 사용 상황에서 언어 뒤섞기와 언어 바꾸기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예쁜 조선족 사회의 노년층 화자들은 대부분 조선말을 사용하지만 조선말에 없는 단어나 표현에 대하여는 중국어를 차용하여 사용하거나 중국어 코드 뒤섞기기를 하고 인용이나 구호와 같이 특별한 경우에 한해 아주 드물게 코드 바꾸기를 한다. 그러나 중년층이나 장년층 화자들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한 부류는 비교적 학력이 낮고 조선족 마을 출신이며 조선족 학교를 다닌 경우로 주로 조선말을 사용하지만 필요한 경우 쉬운 중국어를 쓰기도 하는 화자들이고, 다른 한 부류는 비교적 학력이 높고 중국어를 어느 정도 구사하거나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어 대화 상황이나 대화 상대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어휘나 문장 단위의 코드 뒤섞기를 하거나 두 문장 이상을 중국어로 코드 바꾸기 하는 것을 비교적 쉽게 하는 화자들이다. 연령층이 낮아져 장년층이나 청년층으로 오면 코드 뒤섞기보다 코드 바꾸기를 더 자주 사용하게 된다. 더욱이 청소년층의 경우 조선말로 대화를 시작하더라도 한두 문장이나 몇 문장이 오고 가면 바로 중국어로 코드 바꾸기를 하거나 일단 중국어로 코드 바꾸기를 한 다음에는 한동안 계속하여 중국어로만 말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중국어로만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가서야 조선말로 코드 바꾸기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⁴¹⁾ 이는 노년층에서 우려하듯이 장래에는 조선말이 점점 사라져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은 사실은 이주 3세대나 이주 4세대 이하로 갈수록 중국 사회에 동화되는 정도가 심하고 언어 바꾸기를 넘어 언어 전환이나 언어 교체의 징조가 청소년층으로 갈수록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는

41) 예를 들면, 전체 5분 15초 분량의 녹음 자료 가운데 처음부터 2분 44초 동안은 중국어로만 말하다가 조선말로 한마디 한 다음 다시 중국어로 코드 바꾸기를 하고 3분이 지나서야 조선말과 중국어의 코드 바꾸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고, 8분 분량의 녹음 자료에서는 처음 9마디 가운데 두 마디가 중국어이고 이후부터는 중국어를 주로 사용하고 조선말은 이따금씩 사용하는 코드 바꾸기가 관찰되기도 하였다. 물론 이와 상반되는 코드 사용도 많이 관찰되지만 분명한 사실은 노년층에서는 거의 관찰되지 않던 코드 바꾸기가 장년층 이하에서는 일상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이다.

조선족은 중국에서 조선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민족 정체성에 대한 의식이 조선족도 중국에서는 중국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희석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된다. 언어 전환의 모습을 한자리에서 극명하게 보여주는 곳이 학교라고 할 때 중국 조선족의 언어 정책과 언어 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도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언어 정체성이나 언어 태도가 코드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코드 선택은 결국 언어 전환이나 언어 교체를 가져올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둔다.

참고문헌

- 강현석·강희숙·박경래·박용한·백경숙·서경희·양명희·이정복·조태린·허재영
(2014), 《사회언어학: 언어와 사회, 그리고 문화》, 서울: 글로벌콘텐츠.
- 권태환·박광성(2004), <중국 조선족 대이동과 공동체의 변화: 현지 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언어학》 27(2), 61~89, 한국언어학회.
- 박경래(2002가), <중국 연변 조선족들의 모국어 사용 실태>, 《사회언어학》 10(1), 113~146, 한국사회언어학회.
- 박경래(2002나), <중국 연변 조선족들의 언어 태도>, 《사회언어학》 10(2), 59~86, 한국사회언어학회.
- 박경래(2011), <2011년도 중국 집단 이주 한민족의 지역어 조사 보고서 1>, 국립국어원.
- 박경래(2017), <중국 조선족의 언어 정체성 변화 양상과 언어 전환>, 《사회언어학》 25(4), 1~29, 한국사회언어학회.
- 박경래·곽충구·정인호·한성우·위진(2012), <재중 동포 언어 실태 조사>, 국립국어원.
- 박광성(2012), <2010년 중국 인구센서스: 조선족 인구 통계 분석>, <http://www.zoglo.net/blog/read/piaoguangxing>
- 송원양(2017), <조선족 언어의 중국어 차용어에 대한 음운론적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논문.
- 이광규(1996), <연변 조선족의 사회적 배경>, 《중국 길림성 한인동포의 생활문화》,

29~38, 국립민속박물관.

이익섭(2000), 《사회언어학》, 서울: 민음사.

임형재(2006), <중국 조선족 대화에서 나타난 표현형 코드전환>, 《한민족문화연구》
19, 123~143, 한민족문화학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8),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017》, 출입국·외국
인정책본부. <http://www.immigration.go.kr>

Bernstein, B.(1971). *Class, Codes and Control, Volume 1: Theoretical Studies towards a
Sociology of Languag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박경래

krpark123@hanmail.net

논문 접수일: 2018년 11월 18일

논문 심사일: 2018년 11월 18일~12월 7일

게재 확정일: 2018년 12월 11일